



# OPP 및 CPP 필름 동향

## Market Trend of OPP Film&CPP Film

우리 나라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포장업계의 불황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포장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름업계의 어려움은 표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수년간 지속돼 온 침체에 지난해 세월호 여파, 올들어 메르스의 영향으로 경기를 살려보려던 의지마저 꺾이고 수요 둔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 공급과잉, 외국 제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필름 생산업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중국시장의 주춤, 일본의 엔화 약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필름 생산업체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내 필름생산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수년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포장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필름업계는 현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도 어디까지 침체로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하고 경기가 쉽게 호전되리란 전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치열하고 포화된 내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 기업 역시 세계 경기의 둔화와 자국의

어려움을 해외로 돌리고 유입되는 해외 제품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치열한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생산원료를 100% 수입하다보니 원유가의 변동과 중동 지역의 상황 변화에도 민감한 대응을 해야하고 경쟁국들의 환율변화에 따른 가격추이 등도 국내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 사정을 저해하는 불안한 요소가 산재해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져 이대로 가다간 포장산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토해내고 있다.

필름업계의 침체 요인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 불안에 대한 소비 위축과 경기 활성화와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설한 설비로 인한 공급과잉이 일어나 수요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정한 상생의 경쟁이 이루어 진다면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둔화돼도 견딜만 하겠지만 설비 가동과 판매를 위한 경쟁이 진행돼 모두가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는 점이다.

특성상 필름 생산설비는 가동을 중단할 수 없고 가동이 중단되면 그에 수반되는 부수 비용이

[표 1] O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3	40,000	27,000	13,000
(주)삼영화학	4	35,000	1,200	11,350
울촌화학(주)	2	40,000	2,000	38,000
JK머티리얼즈(주)	1	12,000	0	11,400
(주)필맥스	3	25,000	7,500	17,500
(주)화승인더스트리	3	30,000	9,000	14,000

더 발생돼 업체들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헤쳐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포장 산업에서 대표적인 원자재인 OPP 필름과 CPP 필름은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부자재 가격이 약 보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OPP 필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림산업(주)의 경우 3개 라인에서 40,000톤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해 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으로 물량변화에 따라 가동율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수출물량 증가를 예상하고 생산량을 늘렸으나 해외시장의 침체로 물량확보가 어려워 과잉물량을 내수에서 소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량을 보면 수출 27,000톤, 내수 13,000톤을 공급하고 있지만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공급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촌화학(주)도 2개 라인에서 40,000톤을 생산하여 수출 2,000톤, 내수 38,000톤을 공급하고 있지만 내수침체, 수요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 내수에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요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삼영화학은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이 4개 라인에서 3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내수 11,350톤, 수출 1,2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삼영화학은 지난해 생산라인을 확대하여 내수와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이었지만 국내외의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신규 수요 확보가 어려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화승인더스트리도 3개 라인 생산 능력이 30,000톤에 이르지만 수출 9,000톤, 내수 14,000톤으로 생산능력 모두를 소화하고 있지 못하다.

수출비중을 높여잡은 화승이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존 물량을 이어가고 신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렇듯이 내수 부진과 중국, 인도를 비롯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약진에 고전을 하는 상황이다.

(주)필맥스 역시 3개 라인에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수출 7,500톤, 내수 17,500톤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았던 필맥스는 지난해 보다 해외 신규 수요확보에 주력해 수출비중을 높이는 했으나 전체 상황으로 보면 물량 감소를 보



## 특 집

이고 있어 내수의 감소분을 수출로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JK머티리얼즈(주)는 지난해와 변화없이 1개 라인에서 12,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전량 내수로 소화하고 있다.

물량감소가 적은 면에서는 약진은 아니더라도 현 상황을 잘 방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라인 증설이 없이 생산물량은 늘어났지만 내수 및 수출에서의 수요는 줄어들고 외국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 또한 치열해져 OPP 필름 생산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듯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폭도 줄어 생존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CPP필름 역시 OPP와 같은 상황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P필름은 지난해 보다 감소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주)성일화학이 3개 라인에서 지난해보다

1,000톤 감소한 11,000톤의 생산량 가운데 내수 10,500톤, 수출 500톤을 기록해 내수와 수출에서 조금씩 늘어나 약진을 하고 있다.

계열사 물량 증가와 신규 필름 생산가 연계한 공급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고 수출물량을 조금씩 확보해 가는 대응이 물량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삼민화학공업(주)는 지난해와 변동없는 3개 라인에서 12,600톤의 생산능력을 보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을 내수로 소화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이 지속되었던 일부 물량이 줄어들어 새로운 수출선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 감소로 줄어든 거래량 확보는 쉽지 않아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삼영화학은 1개 라인에서 3,720톤을 생산하여 내수 1,300톤, 수출 10톤을 소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인 수치로 내수시장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주)유상은 6개 라인에서 15,600톤을 생산할 수 있지만 수출 5,400톤, 내수 2,400톤을 소화해 과잉 생산가능한 물량확보가 시급하다. 그렇지만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을 늘리기란 상당히 어려운게 현실이다.

그나마 자체 소화 물량이 있어 이를 보완해 주고 있지만 내수에서의 감소가 자체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울촌화학(주)는 1개 라인에서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9,000톤을 생산하여 내수 8,500톤, 수출 5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울촌화학도 다른데보다 많은 자체 물량을 확

**[표 2] CPP 필름생산 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3	12,600	1,000	12,600
(주)삼영화학	1	3,720	10	1,300
(주)성일화학	3	11,000	500	10,500
(주)유상	6	15,600	5,400	2,400
울촌화학(주)	1	9,000	500	8,500
(주)필맥스	2	12,000	-	12,000

보하고 있으나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주)필맥스의 상황은 다른 업체들보다 좋은 편이다.

필맥스는 2개 라인에서 12,000톤을 생산하여 전년도보다 2,500톤 정도 생산량을 늘려 모두 내수에서 소화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소량의 수출물량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내수에서는 물량이 늘어났지만 수출에서는 줄어들어 해외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내수에서의 늘어난 물량 확보로 다른 업체들이 물량이 줄어 생산량을 조절한 것에 비하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CPP필름 시장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지만 수치상 아주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판매량의 변화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 영업이익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경영이 개선되었는지는 미지수이다.

최근들어 국내 OPP, CPP 생산업체들이 내수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많아졌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예년과는 달리 후발 경쟁국들의 제품 품질이 어느정도 올라왔고 가격 경쟁력도 높아져 우리 업체들에게는 힘겨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과는 다르게 더욱 어렵고 치열한 경쟁이 될 전망이고 국내의 경기 침체와 물량감소가 호전되는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암울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과 수요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증설한 설비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품질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한 수요처 확보와 기존 거래선에 대한 방어가 더욱 치열해져 현장에서는 판매를 위한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출전문업체와, 수입 전문업체들이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에 가세하고 국내업체와 외국 업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돼 수출에서도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 없다.

또한 FTA가 체결이 확대되어 국내외 업체들의 구분이 없어지고 환율, 원부자재 수입가격 등 주변환경의 변수가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어 필름 생산업체들에게는 버거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들어 경기침체의 가속화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이 지속되고 중국 및 동남아의 저가제품 강세,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 OPP, CPP 필름 생산업체들이 안정된 물량 확보로 전 설비의 생산능력이 풀 가동되도록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 기업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